

전북특별자치도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금연·예방·치료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4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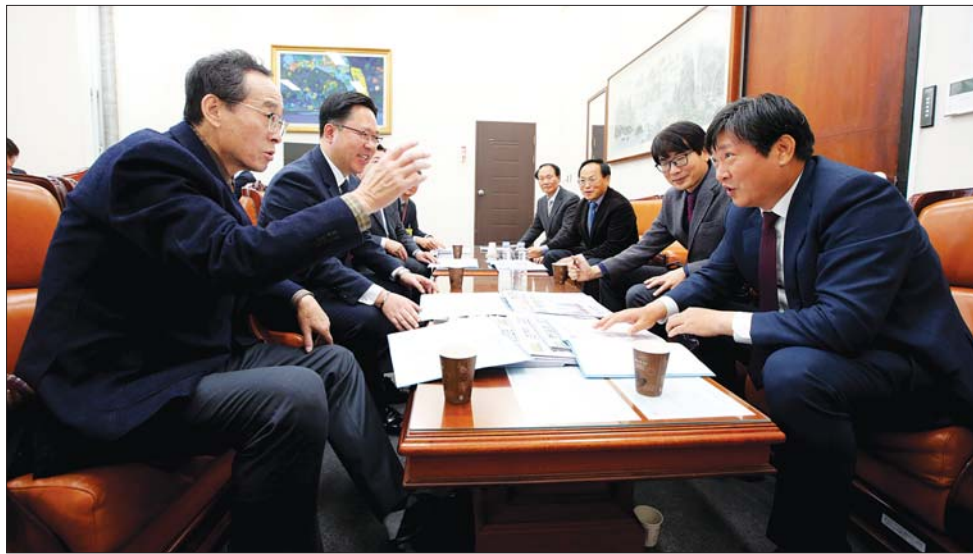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11월 22일 수요일 (음 10월 5일) 제193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1일 국회를 찾아 백재현 예결위원장,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각 당 예결위 간사 및 예결소위 위원 등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면서 2018년도 전북도 국가예산 반영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사진은 이춘석 민주당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있는 모습.

내년도 예산 다음달 2일 결정

전북현안 사업비 확보 총력

송 지사, 예산소위 심사기간 2주 남음에 따라 국회 방문
 4500억원대 증액 위한 핵심사업 위주 확보활동 벌여

송하진 도지사는 21일 국회를 찾아 백재현 예결위원장,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각 당 예결위 간사(황주홍, 윤후덕, 김도읍) 및 예결소위 위원(유승희, 김광립, 김태연) 등을 순차적으로 방문, 2018년 국가예산 확보에 나섰다.

내년도 예산이 12월 2일에 결정됨에 따라 현재 각 당 심사기간을 진행하고 있는 예산소위 심사기간인 남은 2주가 매우 중요한 시점으로 4,500억원대 증액을 위한 핵심사업 위주 확보활동을 펼쳤다.

도정 주요현안으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법안 개정을 위해 각 상임위 법안 소위위원회(인재근, 민홍철, 이훈, 정종섭, 정우섭, 박재호) 면담을 통한 막바지 지원활동을 펼쳤다.

도정 핵심사업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으로 ▲황주홍 예결위 간사에

게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완공을 위한 예타면제 및 사전타당성 용역비(10억),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전주역사전면 개선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40억) 반영을 요청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전라도 새천년 공원 조성사업(10억)에 대한 지원,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을 추가 증액 ▲이춘석 민주당 사무총장에게는 도로(새만금~전주, 동서·남북도로, 신항만), 국제공항 등 융복합제품산업 육성사업의 예타 통과와 사업비(20억)지원을 요청 ▲윤후덕 민주당 예결위 간사, 김도읍 한국당 예결위 간사, 김광립 예결소위 위원에게는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완공을 위한 예타면제 등 행정절차 신속 추진과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비(10억), ▲유승희 예결소위 위원에게는 새만금 캠퍼리 부지내 VR 스포츠 테마파크 조성 및 e스포츠대회 개최 등을 위한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 기본설계 용역비(10억) 반영과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지원센터(50억), 말산업 특구 지원(20억),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한 시제품 제작터 추가장비 구축 지원(35억) 등을 건의했다.

도정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법안 개정 건의활동으로는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 새만금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 근거가 마련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탄소산업 진흥을 담당할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내년 국가예산이 의결되는 마지막까지 지역 주요사업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감액심사에 이은 증액심사에 대비해 전방위적 활동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며, "2018년 국가예산 최종 확정 시 까지 정치권과 긴밀한 공조관계를 유지하면서 6조5,000억원대 목표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도내 은닉재산 찾기... 전문가들 손으로

전북도교육청이 운영 중인 '재-테크' 학습동아리가 도내 은닉재산 32필지 6,796㎡(공시지가 기준 약 1억여원)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도교육청 재산담당과 14개 지역교육청 재산담당 공무원 21명으로 구성된 재-테크 학습동아리(회장 강명숙 군산교육지원청 재정담당)는 올해 도교육청 학습동아리 공모에 '은닉재산 발굴'을 주제로 선정돼 활동해 왔다.

재산 담당자 21명이 4개의 소모임으로 구성된 후 1년 동안 활동하며 4개 지역교육청에서 총 32필지 6,796㎡를 발굴하는 성과를 냈으며 이중에 29필지 5,722㎡는 도교육감으로 소유권을 이전했으며 3필지는 소유권 이전을 진행하고 있다.

은닉재산은 과거 일본의 통치와 광복, 6·25전쟁 등 사회적 변화를 겪는 과정에서 전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재산관련 공부(公簿)가 손실된 경우나 교육·학예에 관한 재산 취득·처분 권한 보유 등 교육 자치 제도가 수차례 바뀌면서 전북도교육감 소유로 소유권 이전이 이행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도교육청 학습동아리의 이러한 성과는 바쁜 일과 중에도 지적(地籍)을 담당하고 있는 관련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넘겨받은 코드화된 수백만 건의 지적을 일일이 분석하여 도교육청 재산으로 추정되는 토지에 대하여 확인 검토를 통해 얻어냈다.



전북도교육청 '재-테크' 학습동아리가 도내 은닉재산 32필지 6,796㎡(공시지가 기준 약 1억여원)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21일 밝혔다. '재-테크'는 도교육청 내 재산담당자들로 구성됐다.

재산담당자로 구성 도교육청 학습동아리 '재-테크' 공시지가 기준 1억여원 상당 32필지 6796㎡ 발굴

강명숙 동아리 회장은 "14개 자치단체에 지적을 의뢰하였으나 일부 지자체에서 협조가 잘 안되어 7개 시·군 자료는 검토조차 할 수가 없었으며 회신된 자료가 코드화되어 있어 확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또 도교육청 재산담당 사무관은 "동아리 회원 모두가 합심하여 은닉재산을 발굴하게 되었고 은닉재산 발굴부터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직접 수행함으로써 전북교육비특별회계 재정 증대에 기여하고 공유재산관리를 공고하게 하였으며 재산담당 공무원의 공유 재산 관리 중

요성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도교육청은 재산담당 공무원의 다양한 교육과 연구를 통해 업무 전문성을 신장하고 지속적인 은닉재산 발굴에 노력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소속 지방공무원의 업무 전문성 향상과 역량강화를 통한 조직 경쟁력 강화와 교육 현장의 업무 개선을 꾀하고자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소규모 학습·연구 모임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총 18팀을 선정해 팀당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정해은 기자

문 대통령,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

문 정부 출범 195일만에 1기 조각 완성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을 임명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1기 조각(組閣)은 정부 출범 195일만에 완료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청와대에서 홍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제출 기한을 지난 20일로 정해 국회에 요청했지만 무산되자 하루 뒤인 이날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홍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것은 조각 지연 사태를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장관의 장기 부재로 인한 중소벤처기업부 업무 불만도 누적돼 더이상 임명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사례는 이날 홍 장관에 이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 송통신위원장 등 총 5명으로 기록됐다.

하지만 야당이 홍 장관 임명에 극렬 반대해온 터라 향후 야권과의 협치가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여당 입장에서 당장 연말 예산안 처리와 감시원장 등 주요 공직자 인선 과정에서 야당을 설득해 협조를 이끌어내느냐 하는 부분이 최대 현안이 될 전망이다. /뉴스

국제슬로시티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살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